

[순모임 교재]

## 생명나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Engaging the Lost, the Heart of Jesus

(마태복음 9:9-13)

2023년 첫 순모임입니다. 올해는 생명 나누는 교회, Engaging the Lost 라는 주제로 50주년을 바라보면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 사명인 주님의 사랑과 복음 전파로 영혼 탄생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생명 나누는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는 삶 자체를 말합니다. 순모임을 시작할 때마다 먼저 한 주간 생명나눔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씩 나누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1.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생명나눔은 어떤 것인지 하나씩 나누어 보십시오.
2. 본문은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입니다 (9-11절). 예수님이 세리를 부르시는 것이나 죄인의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가장 감명 깊게 다가옵니까?
3. 예수님은 스스로 세상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2-13절). 제사와 같은 종교적 활동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과 공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순원들 중에 공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분이 있다면 칭찬해 보세요. (배우자를 칭찬해도 좋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나는 어느 정도(1~10) 공흠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리 마태를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찾가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면서 생명나눔을 위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지 나누어 보시고 그 부분을 위해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